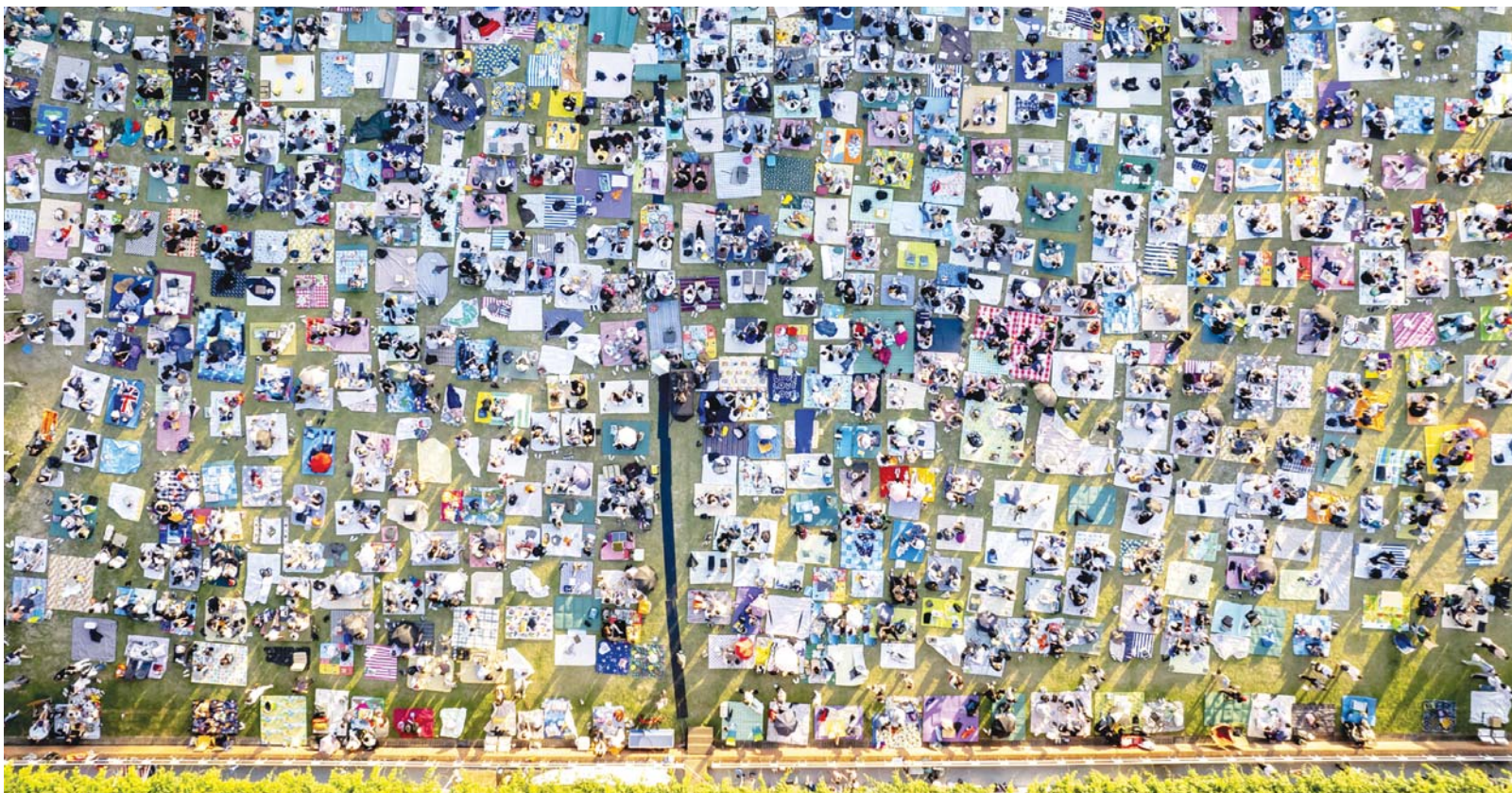


더 심플하게... 하지만, 더 특별하게...



내달 6~8일 무주군 일원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아름다운 무주의 대자연 속으로 떠나는 '영화소풍',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시간이다.

올해는 18개국 86편의 영화와 공연, 토크, 그리고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질 예정. 조금 더 심플하게, 하지만 더 특별하게 그려질 3일간의 낭만 여정을 따라가보자!

.....

영화도 보Go...

무주도 보Go...

영화제 기간동안

가볼만한 곳 소개



▶ 최북미술관 · 김한태문학관

최북미술관은 무주태생, 조선 후기 화가 최북의 생애와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영화제 기간에는 2층 기획전시실에서 '넥스트 시네아스트: 감독 박세영' 특별전이 열린다. 단편영화와 CF, 뮤직비디오, 사진 작품 등이 루핑(Looping) 반복 재생하는 짧은 영상으로 상영(전시)된다.

김한태문학관은 1909년 무주에서 태어나 일제 암흑기 순수문학의 이론 체계를 정립한 문학평론가 출신 김한태의 일생을 조명하고 업적을 기록한 곳이다. 1층 특별전시실에서는 한글 동요와 동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노래해'가 열리고 있다.



▶ 무주상상반디숲

무주상상반디숲은 무주형설지공도서관과 무주군가족센터, 무주생활문화센터가 한데 모인 복합문화시설이다. 영화제 기간에는 지하 1층에서 하는 '무주구천동 33경 사진전'이 개최된다. '구월담, 백련사, 향적봉' 등 아름다운 무주를 생생한 사진 작품(20점)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1층에는 차 한 잔의 여유가 있는 '카페'와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위치해 있다. 무주산골영화제에서 기증한 책들로 가득한 '산골책방'도 있어 영화제의 이모저모를 되짚어 볼 수 있다. 2~3층에 자리한 '도서관'에서는 탐독이 가능하다.

▲관람 포인트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알차게 즐기려면 공간별 특성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한다. 무주산골영화제 측은 실내(무주산골영화관, 무주예천문화관, 진통생활문화체험관)는 '영화' 중심으로, 야외(무주등나무운동장, 한풍루,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태권도원)는 '공연'과 '이벤트' 위주로 기획하는 등 특별함을 더했다.

△창(窓): 산골영화관 2개 관= '창'은 무주산골영화제 유일의 경쟁 무대다. 한국영화장편 경쟁 부문으로 탈북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은 박준호 감독의 '3670' 등 극영화 6편을 비롯해 게임과 현실을 오가는 정재훈 감독의 다큐멘터리 '엑스퍼의 빛',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허범욱 감독의 애니메이션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 등 8편이 경쟁한다.

△숲(林):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무주산골영화제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숲속 극장. 올해는 6월과 7월 아카데미 장편애니메이션상 수상작 '폴로우' (2024)를 비롯해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한국 관객의 힘을 보여준 최고의 화제작 '너 풀: 디렉터스 컷' (2024) 등 인간과 자연, 음악과 인생, 사랑과 이별, 아름다움에 관한 동시대 최고의 영화, 총 6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길: 태권도원(도약센터 3층 대강당)= '길' 색션은 '마을로 가는 영화관'의 형태로, 올해는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에서 진행된다.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인 '태권스테이'와 연계한 '별빛 시네마'를 선보일 예정으로 2023년 개봉 당시,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화제의 애니메이션 '로봇 드림'이 상영된다.

▲재미 포인트

무주산골영화제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좋은 영화 못지않게 뜨거운 공연 열기. 올해도 '낙' 색션과 '키즈스테이지(kids stage)'에서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뮤지션 공연과 책,



실내는 영화 위주 · 야외는 공연 위주로 기획... 특별함 더해 모든 연령층 아우르는 공연 · 미술 · 영상 등 다양한 재미 선사 한국영화의 다채로움 선보이기 위해 디렉터즈 포커스 등 도입

미술, 영상 등 다양한 장르가 선사하는 재미와 만날 수 있다.

△락(樂): 무주등나무운동장= 故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등나무운동장이 무주산골영화제의 메인 공간. 천연 잔디가 펼쳐진 운동장에서 즐기는 공연과 토크, 브랜드 팝업 이벤트가 일품이다. 올해는 6월 6일 '넥스트 액터 최현욱'의 야외 토크부터 6월 8일 무성영화 라이브연주 '스피드 with CHS'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키즈스테이지(Kids stage): 한풍루(자남공원)= '키즈스테이지'에서는 미취학 아동은 물론,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너 핑크퐁 컴퍼니'의 베베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 애니메이션 '베베핀 극장판: 사라진 베베핀과 핑크퐁 대모험' (2025)이 극장 개봉 전 무주 관객과 만나는 것을 비롯해 총 6편의 영화가 선보인다.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하는 '영화 & 공연', '위대한 태권도'도 관람할 수 있다. 영화 상영 사이사이에는 '서커스 공연'과 '양치 습관 교육' 등 이벤트가 기다린다. 어린이놀이터 '나비숲'은 가족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다.

▲이야기 포인트

무주산골영화제는 그동안 전 세계 동시대 영화감독 중 영화 미학의 최전선에 있는, 자



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가진 감독 1인을 선택해 그의 영화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동시대 시네아스트'와 잠재력 있는 배우를 소개하는 '넥스트 액터'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한국 영화를 응원하고 한국 영화의 다채로운 풍경을 선보이기 위해 한국 영화감독 특집 '디렉터즈 포커스'와 '넥스트 시네아스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의 말 · 말 · 말

“친환경 실천 안전한 영화제”

▶ 황인홍 조직위원장

“무주산골영화제는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등 자연 속에서 즐기는 영화제, 휴식과 낭만을 콘셉트로 한 국내 유일의 휴양 영화제입니다. 올해도 무주에 최적화된, 무주만이 할 수 있는, 무주라서 가능한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을 실천하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영화제라는 인식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들이 간식 부스를 비롯해 다양하니까요. 올해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전체 구성에 변화”

▶ 유기하 집행위원장

“올해 열세 번째 영화소풍은 조금 달리 준비했습니다. 12년간 5일이었던 행사 기간을 3일로 줄이고 프로그램 전체 구성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재도약과 성장을 위한 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골 무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숲'이 있어 가능한 게 바로 '무주산골영화제'입니다. 도시 영화제가 익숙한 모두에게 불편할 수 있는 여정이지만 가까이 와주시길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방문 관객 접근성 높여”

▶ 조지훈 부집행위원장

“올해는 첫 방문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각 공간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실내 상영과 야외 상영 프로그램으로 큰 틀을 나눴습니다. 프로그램도 실내는 영화를 중심으로, 야외는 공간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관객 여러분이 영화관람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화 선정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넥스트 시네아스트'와 '디렉터즈 포커스', 이 두 한국 감독 특집 프로그램도 눈여겨 봐주시길요. 한국 영화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